



주 제:	“성령을 받아라.”	“성령 강림 대축일”	2009년 5월 31일
복음 묵상:	[요한 20,19-23]	[사도 2,1-11]	[1 고린 12,3 ~-7.12-13]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는 그 따르는 무리를 찾고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평화를 주고자 하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려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요한 14, 27). 세상의 평화는 세상적인 것인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 세상의 것에 의해 흔들려(?) 흔들리는 평화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두고 가야 하는 평화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려는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골로 1, 20)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느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로마 5, 1)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 받고, 내가 하느님 앞에서 새로운 인간이 됨으로써 갖는 평화이다.

이 평화와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심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용기를 주신다는 의미이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승을 죽인 백성의 지도자들이 두려웠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닐까?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길러주신 스승, 그들 모두가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도망친 그들이었다. 그들의 배신과 나약함과 비굴함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어 새 인간이 되게 하시고(창세 2, 7), 성령과 함께 용서를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제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들과 모든 이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용서가 바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참된 길임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고해성사도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해성사 때 그리스도로부터 파견 받은 사제에게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다. 그 완성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이루어진다(마태 18, 35). 이렇게 고해성사가 이루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참 평화가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부산 윤준원 신부님 강론에서)

###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이 은순 아녜스 자매님의 모친 김봉하 안나 자매님의 장례 예절에 성가대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주님께 간절히 빌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 최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결혼 40 주년기념으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과 세실리아 자매님 5/23(토) 모친 권도남 모니카 자매님께서 넘어져 다리 수술을 받아 2 주일 여정으로 한국을 가게되었습니다. 여행중에 안전하게 함께 하실 것과 모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조성숙 리따자매님 6 월 초에 돌아오신다는 연락과 함께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안부를 전해오셨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짜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1분 명상

♡ 내가 늘 함께하리라♡

- 고도원의 아침 편지중에서 -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홀로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는 말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라,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마라,  
 슬퍼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슬퍼하라,"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할 때 현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다시금 자리 잡습니다,

- 그랜저 웨스트버그의 《굿바이 슬픔》 중에서 -

\* 슬픔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슬픔의 줄이 날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소망은,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는 벗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의 한구석에도 희망이 다시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생활의 지혜**

- 전자레인지 얼룩과 냄새  
 레인지에 뜨거운 물을 담은 그릇을 넣어 2~3분 가열해 내부에 수증기를 쏘어주면 눌러붙었던 오염이 부드러워져 청소가 쉬워진다.  
 주방용 세제를 푼 물을 행주에 담갔다가 꼭 짜서 내부를 닦고, 잘 지워지지 않으면 칫솔을 사용해 닦는다.  
 청소가 끝나면 내부가 건조될 때까지 문을 열어둔다.
- 묵은 쌀의 냄새를 없애려면  
 아침밥으로 사용할 쌀을 그 전날 저녁 미리 식초 1~2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씻어서 소쿠리에 받쳐 물기를 뺀다. 다음날 밥을 짓기 전에 한번 더 미지근한 물로 행군 후 밥을 지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오늘의 말씀:**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가,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형제들에게 내리기를 빕니다(에페 6,23)."